

한국융합인문학회 -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년 추계 연합학술대회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 일시 : 2016년 10월 29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215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 ▶ 주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년 추계 연합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6년 10월 29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 인암캠퍼스 문과대학 215호

제1부 학술대회 |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4:00-16: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14:10-14:40	주제발표 1	▶ 영화 <곡성>과 <손님> 무가에 나타난 '신과 관계 맺기' • 발표 : 정장순 (고려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 해방이전 한국 근대 잡지사 연구 • 발표 : 양윤모 (극동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박치범 (고려대)
15:20-15:30	휴 식	
15:30-16: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00-17:00]

- 진행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박보영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제3부 정기총회 [17:00-17:30]

- 의장 : 회장 소인호
- 사회 : 편집이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편집이사 박보영
2. 제3차 정기총회 개회선언_ 회장 소인호
3. 학회장 인사_ 회장 소인호
4. 학회활동 보고_ 편집이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회장 소인호 / 총무이사 송시형
 - 제1호 안건 : 2015~2016년 회계결산 보고 및 추인
 - 제2호 안건 : 2016~2017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제3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회장 소인호
7. 폐회선언_ 회장 소인호

[목 차]

2016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주제발표 1

영화 <곡성>과 <손님>에 나타난 ‘신과 관계 맺기’ 7

▶ 발표 : 정장순 (고려대학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주제발표 2

해방이전 한국 근대 잡지사 연구 27

▶ 발표 : 양윤모 (극동대학교)

▶ 토론 : 박치범 (고려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41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42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43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주제발표 01]

영화 <곡성>과 <손님>에 나타난 '신과 관계 맺기'

/ 정장순(고려대학교)

[주제발표 02]

해방이전 한국 근대 잡지사 연구

/ 양윤모(극동대학교)

영화 <곡성>과 <손님>에 나타난 '신과 관계 맺기'

정장순*

I. 들어가며

사람은 예로부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을 신에게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신은 자연현상이거나, 동물일수도 있고 자연으로부터 상상된 어떠한 존재이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신만 모신 것이 아닌 신과 관련된 의례 또한 다양하게 존재했다. 여기서 이루어진 의례는 해당 문명의 종교적인 관념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은 의례를 통해 신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인도-유럽계통의 종교에서는 신을 3기능으로 나누어 '주술적 혹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 신', '전투력의 신', '풍요와 경제적 번영에 관한 신'으로 나뉘고 사회도 이와 같은 3기능으로 나누었다.¹⁾ 이 중 '법과 주술'의 힘을 가진 신은 하늘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주술이 가진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과학문명이 발달하며, 자연에 대한 분석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적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며, 아직도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술적 힘을 발휘하는 의례는 주로 '굿'이다. '굿'에 참여자들은 '굿'이 가진 특수한 '주술성'과 '신앙'으로 인해 오랜 기간 배척을 받았다. 이는 현재 일부 '굿'들이 문화재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시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에서도 살필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굿이 우리나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는 현대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에서 수용하여 재현하는 것에서도 살필 수 있다.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hati88@naver.com

1) 인도의 계급제가 크게 브라만(제사장), 크샤트리아(전사계급), 바이샤(생산자)으로 나뉘고, 소아시아에서도 사제계급, 전사계급, 농경민으로 나뉘며 북유럽에서도 드루이드(사제, 법률가), 군사 귀족(플라이트) 자유민(보 아이리그)으로 나뉘는 것을 제시했다(엘리아데 편/이용주 역, 『세계종교사상사』, 이학사 2005).

하지만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무당은 현실과 괴리되어 존재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미신을 대표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일부 작품에서는 기괴함이 강조되거나 요사스러운 것이 강조되어 등장한다. 이는 실제 ‘굿’을 하는 무당들의 모습과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본고는 이런 대중문화 속 무당과 현실에서 등장하는 무당과의 괴리가 발생한 지점을 드러내고, 최근 무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큰 흥행을 한 ‘곡성’을 분석하여 향후 대중문화 속에서 갖는 ‘무당’과 ‘무속’의 의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II. 한국의 대중문화 속 ‘무당’

한국의 대중문화에 ‘무당’이 등장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무당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았고, 인식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재구하고 무당에 대해 인식전환을 가져온 작품은 엠마 프란츠의 <뎡큐, 마스터 김>으로 볼 수 있다.²⁾ 이 작품에서 국가무형문화재 82호 김석출을 조망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그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후 박찬경의 <만신>과 같은 작품이 등장하여 대중에게 익숙치않은 무속인의 삶을 조망한 작품이 등장했다. 하지만 무속인과 접촉하여 삶을 재구한 작품은 대중들에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고, 흥행 또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어 무속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영화는 대중화에 실패했지만, 여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무속에 대한 부정적 형상은 대중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고, 무속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있다.

대중문화에서는 주술 혹은 미신적인 행위를 할 때 ‘무당’을 등장시킨다. 본디 ‘무당’은 ‘굿’을 통해 영혼과 사람을 이어지고, ‘해원’을 할 수 있게 돕는 존재이다. 또한 ‘무당’은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에 지역의 ‘치병’을 담당하던 존재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 ‘무당’은 존재를 배척당했지만, 의례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 혹은 ‘치료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무당의 형상은, 실제 행위와 달리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존재로 묘사된다. 얼마 전 개봉 한 <손님>이나 <검은사제들>에서 드러나는 무당은 귀신을 내쫓거나, 신을 풀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특히 <검은 사제들>에서 미신의 대표자이자, 기독교의 영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 영화를 보면 무당은 소의 머리를 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기괴하게 묘사되고 있다.

2) 국가무형문화재 82호 김석출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물론 실제 굿판에서도 이와 같은 굿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군웅타살굿의 경우 그 자리에서 개를 죽이고 개가죽을 무당이 쓰거나, 생타살굿의 경우 돼지 한 마리를 그대로 도살하여 와서 이를 육각으로 썰어 주변에 피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³⁾ 하지만 이 의례는 소위 엑소시스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물을 받는 존재가 피를 흘리는 군웅(軍雄)이므로 돼지를 사람 대신 희생시켜 피를 흘릴 일을 막아달라는 의식이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정보전달이 없이 엑소시스트 관련 오컬트 영화에 타살굿과 유사한 행위⁴⁾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무속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봉한 <손님>에서 무당들이 사람들에게 대해 저주의 말을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무당이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는 관객들의 지식을 통해, 작품의 미래를 암시하는 극적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무당들은 앞날에 대한 공수를 주며 부정적인 말은 금구이며, 부정적인 미래일지라도 대응책을 같이 말해주어 앞날의 흉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무당은 요사스럽거나, 부정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무당의 형상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조선시대에 나온 소설에서 무당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의 형상을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기 위해 저주를 거는 ‘妖巫’의 형상으로 나타난다.⁵⁾

이밖에도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다.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급사를 한 사람이 ‘고독’과 ‘염매’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 방법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직접 살해한 것과 거의 동등한 죄로 인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저주’에 관련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는 이른 시기부터 ‘고독’에 대해 실록에 기록되어 경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세종 10년 4월의 기사에서 ‘고독’이 민간에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형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외방의 각 고을에 고독(蠱毒)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못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금령(禁令)과 죄인을 붙잡아 신고하는 자에게 상(賞)주는 조건을 논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⁶⁾

3) 현재는 도축법에 위배되어, 의례가 축소되어 칼로 찌르는 시늉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4) 영화에서는 정확히 무슨 거리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굿거리 내용 또한 여러 굿이 합쳐져 있다.

5)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을 없애려 하는 존재는 무당이며, 『인현왕후전』에서 등장하는 무당 또한 저주를 통해 남을 해하려는 무당으로 나타난다(유육례, 「한국고전문학과 샤머니즘」, 『문학과종교』 20(3),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5. 9).

6) 『세종실록』 권 40,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위 기록을 보면 ‘고독’ 을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직접 교시를 내려 ‘고독’ 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이를 해결한 관리에게 ‘상’ 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나라 전체에 걸쳐 널리 퍼져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후기에 ‘염매’ 에 대해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염매(魘魅)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 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어 먹이는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이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죽통(竹筒)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 놓고 아이를 꺾어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치면서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럴 때에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찢어 죽인다. 그래서 아이의 정혼(精魂)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에는,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호부(豪富)한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낮게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는,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댓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드디어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염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엄격히 징계, 고독(蠱毒)의 죄와 동등하게 중벌을 가할 뿐더러, 무릇 사령(赦令)도 그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근자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으니, 이는 아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리라.

상고컨대, “진(陳) 나라 지덕(至德) 2년에 장려화(張麗華)가 염매의 술법을 가져 궁중(宮中)에다 음사(淫祠)를 설치하고 여무당[女巫]을 불러 모아서 북을 두들기고 춤을 추게 했다.” 하고, 그 주에, ‘아양떠는 방법이다[媚道].’ 하였으니, 그도 아마 이런 따위였으리라.

소위 고독(蠱毒)이라는 술법 또한 염매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서쪽 지방 백성들에게는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있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일체 없어졌다.

또 상고컨대, “수(隋) 나라 개황(開皇) 8년에 묘귀(猫鬼) · 고독(蠱毒) · 염매(魘魅) · 야도(野道) 따위를 금지시켰다.”고 하였다. 소위 묘귀란 것은 남을 병들게 저주하는 것인데, 이 염매란 것과 서로 흡사하니 이는 더욱 괴이한 짓이다.

또 《강목(綱目)》 제서(齊書)에 금잠독(金蠶毒)이라는 말이 있으니, 대개 천지 사이에는 무슨 물건이건 없는 게 없는 모양이다.7)

『성호사설』에서 보이는 ‘염매’의 방법을 보면 아이의 원한으로 남을 저주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여 실제로 있었던 행위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익이 구체적인 주술의 행위와 ‘염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야기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야담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실체가 무당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도 저주를 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설 속 이미지와 저주를 거는 집단에 대한 소문이 합쳐져 현재까지도 무당에 대한 부정적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여과 없이 대중문화에 투사되어 <해를 품은 달>에서 ‘살’을 날리거나 ‘백반이 무녀’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⁸⁾

위에 같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미 대중문화에서 ‘무당’은 현실과 괴리되어 주술을 행할 수 있는 ‘오컬트적인 존재’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무당이 ‘한국의 오컬트 영화’ 혹은 ‘공포 영화’에서 콘텐츠로 좋은 소재라 할 수 있지만, 실제 굿판과 무당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 콘텐츠 속 무당과 실제 무당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나홍진 의 <곡성>은 무당에서 나아가 무속의 세계관을 내포한 콘텐츠로 볼 수 있다. 단순히 무당과 굿판이 주로 등장한다고 해서 무속적 세계관에 포섭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무속의식과 서양의 오컬트를 절묘하게 접합시켜 만든 작품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곡성’에 내재된 ‘무속의 세계’와 주술적 의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II. 영화 <곡성>의 무속적 세계관

영화 <곡성>은 ‘외지인’과 <곡성>의 경찰 ‘종구’가 등장하여, 종구의 딸 ‘효진’의 ‘치병(治病)’과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충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결말에 이르러서까지 누가 ‘선’이고 ‘악’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관객들을 모호함에 빠뜨린다. 특히 등장인물 중 ‘외지인’과 ‘무명’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으로 암시되며 이들의 정체성은 ‘신’ 또는 ‘악마’라 부를 수 있는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감독의 인터뷰를 참조하면 무명은 ‘선’ 외지인은 ‘악’이라 규정하고 있다.⁹⁾ 영화에 있어 감독의 해설이 1차적

7) 『성호사설』, 「만물문」, ‘염매고독’.

8) 살(殺)에 대해선 살풀이 굿과 같이 원한을 풀다는 곳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지만, 백반이 무녀는 오롯이 작가의 창작이다.

9) ▶ 그럼 의문의 여성 무명(천우희 분)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 집으로 가려는 종구를 막아서는 결말 부분에서 확실히 인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인 정보가 되어야하지만, 작품 내부에서 보면 그들을 '선' 과 '악' 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에 '병' 을 주고 '치유 혹은 구원' 을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굿' 에서도 병과 관련하여 '선' 하기도 '악' 해지기도 하는 서사가 존재한다. 특히 '손님굿' 은 신에 의해 자식이 득병(得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신과 대립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호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분투하는 '종구' 의 행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과 관계 맺기에서 인식에 따라 그를 악하게도 선하게도 바라 보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들로 등장한다. 이는 비단 등장인물뿐 아니라 해당 작품을 접한 관객들도 공감하는 바이다. 아래 항에서는 두 서사가 끊임없이 신과 관계맺기에서 의심을 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두 작품을 관통하는 무속·주술적인 양상에 대해 살피고자한다.

1. '이방인' 에 대한 '금기'

<손님>무기는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낮게 해달라 비는 '손님굿' 에서 주로 구송이 되는 무기이다. <손님> 관련 무기는 호남에서 8편 동해안에서 7편이 채록 되었고, 부여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일부 채록되었다. 채록된 자료 대다수가 세습무에 의해 구송이 된 자료이며 '교술무

- 무명이 종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맞다. 종구가 아닌 다른 시선에서 보면 종구는 멀쩡한 사람을 의심하고 깡판 치고, 죽이려고 하고, 시체 유기까지 하면서 딸 아이를 살리려 죄를 짓는다. 신(무명)은 그 모습을 전부 봤다. 종구는 결국 신을 만났지만 혼란에 빠져 의심을 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혼돈을 겪다 신의 손을 뿌리친다. 엔딩에 보면 무명이 골목길에 오 그리고 앉아 있는 그림자가 보인다. 난 그게 현재 신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객이 무명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화가 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겠다. 선과 존재를 증명하고, 바라보지만 말아달라. 인간이 인간다워지게 다시 다가와 달라는.

▶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남았다. 종구와 부딪치며 평행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지인(쿠니무라 준 분)이다. 어떻게 보면 수상한 '악인'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같다가 마지막에는 악마의 형상으로 변한다.

- 종구의 플롯과 일본인의 플롯은 다르다. 이 일본인은 죽임 당한 상태로 유기되는 순간 종구의 플롯에서 사라진다. '곡성'의 공간 자체도 그렇고 영화가 매우 한국적인 플롯 안에서 이뤄져 가는데 일본인은 그렇지 않다. 저는 예수를 모티브로 외지인 캐릭터를 만들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랬듯이, '곡성' 사람들에게 외지인은 세상을 뒤엎을만한 위험한 존재로 성장한다. 신을 믿는다면 다가오는 외지인이 선이라고 믿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여기는 거다. 외지인이 뭘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구원하려는 것 같다. 종구 플롯에서 벗어나서 보면 외지인은 홀로 묵묵히 뭔가를 하면서 수행하고 기도한다. 외지인이 한 대사를 보면 성경에 나온 예수의 말 뉘앙스와 비슷한 것이 있다. 마지막에 부활한 그가 악마의 형상이 된 이유는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착안했다. 그렇다면 이런 형상이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관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믿을지, 혹은 믿지 않을지. (노컷뉴스, 나홍진 감독이 직접 답한 '곡성' 12가지 미스터리, 2016/05/19)

가 와 '서사무가' 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가의 분류 방식은 『구비문학대계』와 『한국무가집』의 분류법에 따랐다.¹⁰⁾

'교술무가' 는 신을 모셔놓고 유래를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주로 '노정기' 의 형태로 불리는 '교술무가' 는 '서사'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서사무가' 에 등장하는 '노구할매', '노구할머니', '노구할미', '김 장자' 의 존재가 생략되어 있다. 비록 '교술무가' 의 자료가 '서사무가' 에 비해 적지만 선행연구¹¹⁾에서 고행에 가까운 자료로 추측하고 있으며, '두창' 이 해외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인식과 痘神 의 신적 성격에 대한 묘사가 삽입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교술무가' 와 '서사무가' 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1) 교술무가(청배형)

- ㄱ. 강남대한국¹²⁾에서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온다.
- ㄴ. 조선국으로 오는 손님의 치장을 묘사한다.
- ㄷ. 손님이 뱃사공과 만남 이후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두창'을 옮긴다.
- ㄹ. 손님에게 축원을 한다.
- ㅁ. 손님을 퇴송시킨다.

2) 서사무가

- ㄱ. 강남대한국에서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온다.
- ㄴ. 조선국으로 오는 손님의 치장 묘사.
- ㄷ. 손님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뱃사공과 만나 거절당하자 신의 능력을 보여준다.¹³⁾
- ㄹ. 손님이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노구할머니를 만나 정성껏 대접을 받는다.
- ㅁ. 손님이 노구할머니의 정성에 보답하고자하니 김장자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음

10) 『구비문학대계』에서는 교술무가와 서사무가의 형태로 나누었다. 이야기의 서사단락에서 노정기의 형태를 띠고 신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교술무가(청배형)', 후반부의 추가 서사들이 삽입된 것을 '서사무가' 로 나누어 보고 있다.

11) 변성환, 「<손님> 무가의 유형과 전승」,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손님> 巫歌의 형성과 변모」, 『문학과 언어』 29, 문학과언어 연구회, 2007.

홍태한, 「한국 무속 별상과 별성 신령의 성격과 의미」,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2009.

염원희, 「서울곳 호구거리의 성격변화」,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12) 혹은 강남대한국이 아닌 '大國' 혹은 '中國' 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나 주로 '강남대한국' 에서 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3) 주로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은 뱃사공이 각시손님을 희롱하자 뱃사공과 그의 일가를 모두 죽이는 것에서 나타난다.

- 바. 노구 할머니에게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김 장자는 역정을 내며 아들을 피신시킴.
- 사. 각시손님이 김 장자 아들의 어머니로 변해서 아들을 꺾어내어 병을 준다.
- 오. 김 장자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낫기를 바란다.
- 즈. 병에 차도가 없자 결국 손님에게 꼭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들의 병이 일시적으로 낫지만, 병이 나은 뒤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 아들은 결국 죽는다.
- 츠. 손님들은 죽은 김장자의 아들을 마부로 삼아 데리고 간다. 이에 김 장자 집은 자손이 없어 망하여 거지가 되고, 노구할머니는 몸이 성치 못했던 손자가 병도 낫고 부자가 된다.
- 쿠. 손님에게 축원을 하며 손님을 퇴송시킨 뒤, 손님네 말치레 놀이를 한다.

동해안 지역 세습무들이 구연한 ‘서사무가’ 는 ‘교술무가’ 와 유사하게 노정(路程)의 형태로 손님들이 조선국으로 여행을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뱃사공’, ‘노구할매’, ‘김장자’, ‘김장자의 아들¹⁴⁾’ 과 같이 ‘痘神’ 의 존재에 대해 ‘공경’ 과 ‘불신’ 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痘神’ 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잘 모시면 ‘福’ 을 받고, 못 모시면 ‘禍’ 를 입으며 이는 ‘痘神’ 이 주는 ‘禍’ 와 ‘福’ 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서사무가’ 에서 ‘痘神’ 이 주는 ‘福’ 과 ‘禍’ 는 단순히 물질적인 ‘富’ 보다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것을 통해 생사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가문을 무너뜨리거나 다시 흥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痘神’ 이 주는 보답은 단순히 개인적이며 물질적인 ‘禍福’ 이 아닌 가문의 존속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痘神’ 이 외동아들인 ‘김 도령’ 을 죽이는 것으로 ‘김 장자’ 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노구할매’ 손자의 병을 낫게 해주어 ‘노구할매’ 집안이 부자가 되는 서사가 삽입되어있다.

영화 <곡성>에서 ‘외지인’ 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 전개되며, 이에 대한 불신이 결국 종구에서 화를 불러오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곡성>의 사건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외지인과 종구의 갈등, 효진의 득병과 치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곡성>에서 ‘외지인’ 과 ‘종구’ 는 서로 관계가 없이 소문으로 접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이 되며 ‘종구’ 는 주변의 소문과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외지인’ 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 사건의 전개도 종구에게 다소 주관적인 정보들이 주어지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 이에 대해 신부는 ‘외지인’ 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종구’ 에게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종구’ 가 이미 ‘외지인’ 을 적으로 받아들이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종구’ 는 ‘외지인’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구’ 의 행위변화는 ‘효

14) ‘철원이’, ‘철운이’, ‘철앵이’, ‘철룡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김 장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외동독자로 나타나고 있다.

진 의 증세가 큰 영향을 끼친다.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여린 '종구'가 '외지인'을 적대하게 된다. <손님굿>에서는 '손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들을 부정하는 '김장자'가 등장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김장자'는 자식을 피신시키고, '손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고 축출을 하며 그들을 내부로 들이지 않으려 한다. <곡성>의 종구와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 적대하는 것이다.

특히 두 서사에서 외지인의 등장은 병의 등장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손님굿>은 손님이 강남에서 조선으로 넘어와 '친연두'를 퍼트리고, <곡성>에서는 외지인이 병과 연관되었다는 암시를 한다. 이와 같은 외지인과 병에 대한 관계는 병리학적 관점에서도 일부 상통하는 점이 있지만, 내부인이 되지 않고 결속을 방해하는 외지인의 존재는 사회를 망치는 '병적' 존재로 암시된 것은 아닌가 한다.

두 작품에서 외부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자식이 병에 고통스러워 할 때 더욱 부각이 된다. <손님굿>에서는 아들이 '구슬같은 땀'을 흘리고 '종양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다. 이에 결국 '김진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두신에게 굴복한다. 이에 비해 <곡성>의 '종구'는 자식의 고통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외지인을 찾아가 그를 축출한다.¹⁵⁾ 둘의 사건해결방식은 달랐으나, 결국 자식의 병이 완화되어 기뻐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오고 둘 모두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로 인해 파멸을 맞이한다.

사실 두 서사에서 '김장자'와 '종구'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멸을 맞이한다. <손님굿>에서는 신은 이미 병을 줄 것을 전제하고 자신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곡성>에서도 '종구'는 평화로운 가정을 일군 가장이지만, 갑작스런 효진의 병과 외지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파멸해져 간다. 더욱이 '외지인'에 대한 적대감이 쌓이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 갈등은 심화되고 끝내는 살해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이 파멸을 맞이한 것에 대해 서사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이야기한다. <손님굿>에서는 대접을 잘한 노구할미의 집이 성공한 것과 김도령의 말을 통해, 김장자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곡성>에서는 '무명'이 '종구'에게 '외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라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외지인'은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선인인이 악인인지 알 수 없을 때, 일단 대접을 잘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손님굿>의 손님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데 서울·경기 지방에서는 호구 혹은 별상 등의 명칭으로 '痘神'을 지칭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痘神'을 '손님'으로 지칭하고 있다. '손님'은 사전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의 높임말'¹⁶⁾로 '외부'에서 '내

15) 직접적으로 살해하지 않았으나, 그를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부' 로 찾아온 존재를 높이는 말이다. '痘神' 이 '서사무가' 속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손님' 이라는 명칭은 '痘神' 을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에서 '내부' 로 찾아온 존재이니 만큼 잘 대접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손님' 의 접대 문제를 중요시했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거절하기보다는 '손님' 으로 받아들이고 따로 상을 차려 대접을 했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살림하는 주부는 '손님' 을 위한 음식을 따로 장만해두어 언제든 손님이 찾아와도 응대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었다¹⁷⁾. 또한 '손님' 에 대한 접대를 소홀히 하면 집안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대접이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전근대시기에 '외부' 에서 온 존재에 대해 주의와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공연히 퍼져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풍습으로 보면, 사건의 배경인 '곡성' 에서도 전근대적인 '이방인' 에 대한 경계와 그에 대한 대접 문제가 교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접촉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은 파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외지인' 이 금줄 너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마을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이는 그가 '불경한 존재' 이므로 내부에 진입할 수 없다는 걸 암시한다. 그와 동시에 그가 내부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신' 이 다른 지역에 포섭되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대한 시험이 이루어진다. <손님> 관련 서사에서 이와 같은 시험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토산당 본풀이>이다.

- ㄱ. 나주목사가 자주 번고를 당하자 영천 리목사가 나주의 목사로 부임함
- ㄴ. 나주에서 모셔지는 신을 물리친다.
- ㄷ. 나주에서 쫓겨난 신은 바둑돌로 변하여, 공물을 바치러 온 이방과 함께 제주도로 들어감.
- ㄹ. 제주도에 여성으로 변하여 들어오고, 신이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 좌정하고자 한다.
- ㅁ. 마을 처녀에게 급병을 주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모셔짐을 받는다.¹⁸⁾

위의 신화들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신이 사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모셔지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능력은 '痘神' 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주는 것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민들에게 병을 쥐 시험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한다. <곡성>에서

16)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손님'

17) 이난수, 「장계향(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한국의 철학』 5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151-152쪽.

18)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371-381쪽 요약.

는 끝내 ‘외지인’은 내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악마와 신의 형상이 혼재된 모습으로 뒤 바뀌며 작품이 끝나게 된다.

결국 두 작품에서 ‘이방인’에 대한 전근대적인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접과 대응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신을 거부하여 파멸을 맞이한다는 유사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

2. 신(神)이 가진 이중성

두 서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손님>에서는 긍정적인 존재와 부정적인 존재가 등장하며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신이 가진 이중성을 드러낸다. ‘곡성’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종구’의 인식이 전환되며 그를 완전히 적대시 한 순간 파멸을 맞이한다. 위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하다.

손님의 ‘손님’은 병을 주는 신이므로 기원자체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신이다. 하지만 등장인물은 그가 병을 거두어가기 때문에 선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곡성’의 외지인은 연출 기법에 의해 악한지 선한지 애매모호한 형상으로 등장한다. 특히 ‘곡성’에서 ‘외지인’이 너는 악마냐는 ‘이삽’의 질문에 ‘(당신들이)악마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대답을 하며 자신에 대한 규정은 타인으로 인해 완성이 된다는 발언을 한다. 이후에 예수와 같은 손바닥의 상흔을 보이며 악마로 변신하는 모습은 그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결국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가치판단은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님’의 경우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해자의 시선에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무가라는 특성상 연행과정에서 손님의 존재를 인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은 부정적 묘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도령’의 병을 묘사하는 것에서 더욱 부각이 된다.

<손님>의 ‘김장자’는 ‘노구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痘神’을 정성껏 모시지 않아 ‘痘神’에 의해 ‘자식’과 ‘재물’을 모두 잃는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각본에 따라 ‘김장자’가 ‘痘神’의 위력에 감화하여 제사를 올리고 ‘痘神’을 모심으로써 자식과 재산을 모두 되찾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다수의 각편에서 ‘김장자’는 ‘痘神’의 심기를 거스르며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신은 ‘김장자’의 ‘외아들’에게 병을 옮겨 ‘김장자’의 눈앞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다.

<김석출본>

“우리들은 조선국 방방곳곳이 다니면 마마굿을 청룡두를 정구치면 몸에 잡병도 없아지고 못난 얼굴 잘나지 없는 재산 불려주는 우리를 몰라주니 이놈에 집 삼대독자 철룡이를 본때를 보여 주마.” 각씨손님이 철룡이 어머니 번복을 차려 철룡이 어머니 모색을 변화하여 유점사를 찾아가서 절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철룡아, 철룡아.” 세 번을 부른이 (중략) 철룡이를 앞세워 집으로 다 와서 마당 북판 한가운데다 한꼴딱이드리 때기를 치고 온몸에 은침 백 개 금침 백 개를 꽂아 놓아논이 내 죽겠다고 소리를 치며 “어머니, 나를 와서 이렇게 못살게 합니까.” 하면서 소리를 치니 철룡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절에 있는 철룡이 마당 가운데 넘어져 울고 있으니 철룡어머니가 데리라 가거든 오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느냐. 어머니가 철룡이를 방안에 안아다 눕혀 놓고 나니 철룡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빨리 내려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왔었지요.” 철룡이가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고 많이 알고 있으니 어머니가 짐작하는구나. 손님네 조화가 틀림없다. 소반에다 정화수 물 한 그릇 떠다 받혀 놓고 공을 드리고 있는데 삼 일 만에 철룡이 얼굴에 마마구슬이 솟아나는데 온몸에 구슬이 돋아나니 철룡이가 아파죽겠다고 소리를 외치니 철룡이 말문을 단든이 말을 못하고 병어리 허영만 하고 있으니 (중략) 철룡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재산 가지고 천년만년 잘 사시오. 나는 이제 죽어 손님네 말고삐 들고 따라 갑니다. 내 하나 없어도 이 재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살 줄 아렸오. 부대 부대 잘 사시오.” 그 말이 끝이자 철룡이 숨이 틀격 끈어진다. 그제야 죽은줄 알고 철룡 어머니가 죽은 자식 목을 안고 방성통곡 우름을 울면서 “내 철룡, 내 철룡아. 아주 죽고 영 죽었네. 날 데려 가거라. 너 가는 데 나도 가자. 너 죽고 내가 살면 무슨 세월 보겠느냐. 함께 가고 같이 가자. 팔월 십오일 너 치장 할래고 물명주 고두바지 조고리에 연옥를 친게다리 바지조고리 망종 입고 가거라. 너 없는 세상에 누구를 입힐소냐. 내 철룡아,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개 같은 김장재는 재물만 알고 하다가 금옥 같은 삼대독자 죽이고 마음을 잡지 못하여 주색잡기에 방탕이 되어 그 많은 재산 다없애고 등창이 나서 방 안에서 출입을 못하고 짚신을 삼어 파라서 쌀을 받아 밥을 해 먹고 짚신을 못 삼는 날에는 철룡이 어머니가 박바가지 손에 들고 밥 얻으라 문전문전 다니고 있다.¹⁹⁾

<사화선본>

각씨손님네가 철원이 어머니 모색을 차려서

절로 들이 가셔서

철원아 철원아 어머니 왔다

그 어머니 너 찾으러 왔다

19) 이두헌, 「마마배송굿」, 『한국문화인류학』 4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243-244쪽.

얼넌 나오너라 하니
 철월이는 혼이 빠져서 모색은 어머니 모색이다
 뒤루 보아두 어머니요 앞으로 보아두 어머니요
 아장아장 걷는 뒤 매시 빵긱빵긱 웃는 모내기 조차
 어머니 모색이 와연하던가베요
 그 질로 철월이는 어머니를 따라서
 앞에 서서 어서 가자 하는데
 한 중간 도중에 와서서
 또 철월이를 혼을 다 빼던가베요
 그럭저럭 서울 장안에 김정승댁으로 들어가셔서
 멀쩡하던 아해가 방안으로 들어가더니
아이구 아버지요
아이구 엄마요
단불에 나우 같이 내 죽겠소
나는 죽겠소 나는 죽겠소
 울아버지요 너무도 욕심 많고
 울어머니도 자식에 사정을 요리도 모리시던가요
내가 죽으며너 이 좋은 재물 재산을 누구게다 다 주고 가겠소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구 엄마요
 은금보화면 금패물이면 누구게다 다 주구 가겠읍니까
 날 살려 주시오
 날 살려주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례 진 받이다
 광 너븐 논이다
바대 같은 논이다
문전 옥답은 누구게다 다 줄나구 그럽니깁
아이구 아버지요 엄마요
날 살레 주시오 날 살레 주시오²⁰⁾

위의 사설을 보면 ‘김장자’가 계속 ‘痘神’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시려 하지 않자, ‘각시손님’은 ‘김도령’의 어머니로 변하여 ‘김도령’을 피어내어 병을 준다. 또한 병에 걸려 고통

20) 김태곤, 앞의 책, 243-244쪽.

스러운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 주어 협박을 한다. ‘철룡이 얼굴에 마미구슬이 솟아나는데 온몸에 구슬이 돌아나니 철룡이가 아파죽겠다고 소리를 외치니 철룡이 말문을 닫듯이 말을 못하고 병어리 허영만 하고 있으니’ 라는 대목은 실제 두창에 걸린 환자의 얼굴에 반점이 생기며 붉어가고, 발열과 통증을 수반하는 병의 진행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두창’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더불어 ‘각시손님’은 ‘김 도령’에게 고통스러운 ‘두창’을 주는 데에 있어 일말의 양심적 가책이나 측은함을 보이지 않으며 ‘母性性’이 결여된 존재로 나타난다. 단지 ‘각시손님’에게 있어 ‘김 도령’의 고통은 자신에게 굴복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당은 <손님굿>을 구송하면서 가해자의 시선에서 일말의 동정을 보이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피해자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를 듣는 곳 참여자들에게 신을 믿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곡성’은 영화이면서 스릴러, 오컬트 영화를 적절히 혼합하여, 작품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관객은 ‘종구’의 시선에서 곡성의 서사를 파악하게 된다. 관객과 ‘종구’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등장인물에 대해 명확한 가치판단보다 암시를 통해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감독이 제공하는 극적장치를 통해 외지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물론 감독에 의해 등장인물의 선·악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지만, 작품 내에서는 그들을 끝까지 모호한 존재로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외지인’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극적장치는 그를 ‘악인’으로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²¹⁾ 하지만 ‘선’이라고 주장한 ‘무명’에 대해서도 모호한 극적장치²²⁾를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이 ‘무명’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한다. <손님굿>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을 믿을 것을 강조하는 서사배치를 통해 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곡성>은 가치판단을 오롯이 수용자에게 맡겨, 등장인물을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신은 이중성을 띠고 있지만, 병과 관련한 신은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행위가 극명하게 바뀐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억압하여 불합리한 행위들을 한다. 그 결과 <손님굿>에서는 결국 병의 위세에 눌려 신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곡성>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내리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신과의 관계성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이 둘의 작품이 완벽하게 같은 신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주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외지인이 집에서 기르는 검은개, 주술을 하며 보이는 염소(혹은 빨달린 짐승)의 머리, 검은 닭 등은 서양에서 마녀 혹은 마술사의 상징으로 쓰이는 요소이다.

22) 그녀가 희생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점, 종구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점.

IV. 나오며

본고는 영화 <곡성>과 <손님>의 무가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곡성>에 담긴 무속적 세계관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작품에서 전근대 시기 ‘지방인’에 대한 ‘금기’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과의 관계맺기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밖에도 ‘무명’과 ‘일광’의 존재를 ‘노구할미’에 대조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필자가 영화에 대해 공부가 부족하여, 영화를 보고 들었던 감상과 일부의 내용에 천착하여 연구를 하여 아직 미진하다. 하지만 영화 <곡성>은 기존의 대중문화에서 부정적 ‘무당’의 형상에 치중하여 연출한 것에 비해, 세계관을 포함하여 거대한 서사를 이루었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통해 서양의 ‘오컬트’에 대해 한국의 ‘오컬트’에 다양한 무속적 콘텐츠를 활용할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원자료

조선왕조실록DB, **세종실록** 권 40,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한국고전전문학원문DB, **성호사설**, 「만물문」, ‘염매고독’.

○ 일반논문

변성환. 1998. “<손님> 무가의 유형과 전승”,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염원희. 2010. “서울굿 호구거리의 성격변화”,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유육례. 2015. “한국고전문학과 샤머니즘”, **문화과종교**, 20(3). 한국문화과종교학회.

이난수. 2014. “장계향(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한국의 철학**, 54.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이두현. 2008. “마마배송굿”, **한국문화인류학**, 41. 한국문화인류학회.

현용준·현승환 역주. 1996. **한국고전문학전집: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홍태한. 2009. “한국 무속 별상과 별성 신령의 성격과 의미”, **비교민속학**, 39. 비교민속학회.

_____. 2007. “<손님> 노래의 형성과 변모”, **문학과 언어**, 29. 문학과언어학회.

[토론문]

비교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무속(巫俗) 콘텐츠

송시형 / 국제사이버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이 논문은 영화 <곡성>에서 표현되고 있는 한국의 무속콘텐츠를 <손님굿 무가>와 비교하여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속신앙의 현실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연구이다. 먼저 이 논문의 주요대상인 영화 <곡성>은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 <황해>와는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나홍진 감독의 <곡성>은 「누가 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누가 복음 24장 37-39절」

「누가 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서술한 책으로 이 영화의 등장인물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의 설정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외지인의 낯시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이 작품 안에서의 외지인의 설정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 작품 안에서 한국의 무속신앙과 서양의 기독교신앙 그리고 악마로 설정되어 있는 외지인이라는 존재가 서로 충돌하고 엮이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화 〈곡성〉의 무속적 세계관에서 악마로 대변되는 ‘외지인’ 설정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단순한 구도가 아닌 ‘신과 관계맺기’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특히, 이 논문에서 〈손님굿〉 무가와 영화 〈곡성〉을 연계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염두해 두면서 〈곡성〉의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이방인’에 대한 존재와 그에 대한 경계와 대접 문제가 교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본문 내용 중 ‘3.2. 신이 가진 이중성’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다.

두 서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손님굿〉에서는 긍정적인 존재와 부정적인 존재가 등장하며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신이 가진 이중성을 드러낸다. ‘곡성’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종구’의 인식이 전환되며 그를 완전히 적대시 한 순간 파멸을 맞이한다. 위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은 선악의 구분이 모호하다.

위의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선과 악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영화 〈곡성〉에서는 실제로 극중에서 무당인 ‘일광’이 외지인의 낯시질에 ‘효진’이 걸려들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규정된 ‘악’이 아니라 수용자에 의해서 완성된 형태의 ‘악’이라는 설정이 작품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작품 안에서 지속적으로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곡성〉의 ‘외지인’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에게 던지는 대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

나느냐? /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 바로 나다.”

위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의 시작부분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을 이 논문에서는 영화 〈곡성〉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내리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신과의 관계성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고 하면서 〈손님 곳〉 무가와 완벽하게 같은 신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주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시각은 일정부분 한국의 무속신앙을 영화 〈곡성〉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연구라고 생각한다. 물론 후속연구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일어지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박제화 되고 곡해되고 있는 무속신앙이 대중문화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해방이전 한국 근대 잡지사 연구*

양윤모**

I. 서론

잡지는 일정한 이름을 가지고 호를 거듭하며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로 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글이 실리며, 간행 주기에 따라 주간·순간·월간·계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내용을 실는다는 점에서 잡지는 융합적 성격을 지닌다. 어느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신문과 같은 신속성의 의무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취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발간 목적에 따라 원하는 주제로 글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초기의 잡지들은 근대 문물의 소개와 민족 계몽이라는 뜻을 실어 펴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잡지 형식의 간행물이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말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발행한 영문 잡지와 친목회에서 발행한 회지 등이 초기 잡지라 할 수 있지만 근대적 체계의 잡지라고 하기에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1892년 1월 선교사 올링거(Ohlinger) 부부가 창간한 이후 아펜젤러와 존스의 편집으로 1899년까지 발간된 『The Korea Repository』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였다. 그러나 한국인을 위해 한국어로 쓰여진 잡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의 한국잡지라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또한 ‘재일본 동경대 조선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인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는 일본에 유학한 조선 학생들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895년 2월 창간되었다. 이후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대한자강회 월보』, 『서우』(서우학회), 『서북학회 월보』, 『호남학보』(호남학회), 『기호흥학회 월보』 등 학회의 기관지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회 및 단체의 회지는 자신

* 이 글은 필자가 문예지 『정신과 표현』(2008년 11·12월호, 통권 69호)에 게재했던 “근대 잡지의 탄생과 전개”(평론 글)를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 극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yym02@kdu.ac.kr

들의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회원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는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해방이전에 창간된 근대 잡지의 명멸을 통해 한국 근대 잡지사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II. 근대 잡지의 탄생

일반 대중을 독자로 삼아 발행된 최초의 근대 잡지는 1908년 11월 1일 육당 최남선에 의해 발행된 『소년(少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남선은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 시절 학생모의국회 토론 안건이 조선의 조정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동맹퇴학 후 귀국하여 19세의 나이에 『소년』지를 창간한다. 『소년』 창간호 말미에 수록된 ‘편집실 통기(通寄)’를 보면 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지는 어디까지든지 우리 소년에게 강건하고 건실하고 궁통(窮通)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고로 결코 연약·나태(懶惰)·의지(依持) 허위의 마음을 자극할 듯한 문자는 조금도 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나 미적(美的) 사상과 심신 훈도(薰陶)에 유조(有助)할 것이면 경뢰(輕賴)한 것이라도 조금조금 게재하겠소.’¹⁾(『소년』 창간호, 1908. 11. 1)

청소년들이 강하고 튼튼하고 궁리를 잘하는 인물로 성장하기 바라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의지가 부족한 점을 배격하기 위해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계몽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소년』에 수록된 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교훈적인 글, 전기와 일화, 역사, 지리, 자연과학, 소설, 시가, 기타 등이다. 피터대제, 가리발디, 이순신, 에디슨 등의 위인을 소개하고 「갈리버 여행기」, 「로빈슨 표류기」, 「한 사람은 얼마나 땅이 있어야 하는가」 등 외국의 소설을 번역 소개하였고, 「해에게서 소년에게」, 「꽃두고」(최남선)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창작 시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시조를 국풍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태백산가」, 「태백산부」, 「태백산의 사시」 등 「태백산 시집」의 여러 편의 시조를 발표하며 시조부흥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수록된 글들을 분류해보면 서구문학의 소개와 역사, 지리, 자연과학 등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다룸

1) 김근수 편저,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73), p.26.에서 재인용.

이하 본고에 언급된 각 잡지의 서지사항은 특별히 주석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로써 당시 젊은이들의 교양을 강화하고자 한 최남선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조선의 청년 계몽에 목적을 두고 발행된 『소년』은 발행 3년째인 1910년 8월 발매정지와 정간을 당하고 그 이듬해인 1911년 월 통권 23호를 끝으로 종간한다.

비록 4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년』은 근대적인 종합잡지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계몽, 서구의 근대 문학 소개, 새로운 시형식의 실험 및 발표, 전기·역사·지리·금언·격언 등 서구의 문물 및 사상의 소개 등 당대의 과제였던 개화와 계몽을 충실히 이행한 잡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초기 독자층이 적었던 점, 발행 후 3년이 지나서야 이광수, 홍명희 등이 참여하기 전까지 최남선 혼자 집필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Ⅲ. 일본의 식민지배와 근대잡지의 명맥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식민지배하면서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실시한다. 무단정치체제 하에서 조선인의 정치적 집회는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신문, 통신, 잡지, 기타 출판물은 엄중한 검열을 받았고, 조선인의 신문 발행은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황성신문』은 폐간되었고 항일운동의 선봉이었던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의 압력으로 발행인 변경을 거쳐 『매일신보』로 개명되어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였다.²⁾ 앞에서 언급한 『소년』의 폐간도 이러한 시대적 맥락의 결과였다. 총독부의 억압적 정책으로 이 시기 발간된 잡지는 종교잡지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치와 시사 문제는 다룰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이처럼 여러모로 잡지 출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간된 『청춘(靑春)』과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는 각각 대중 교양계몽지, 문학전문지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1914년 10월 1일 창간된 『청춘』은 일반 대중의 교양을 목표로 발행한 계몽지였다. 소년에서 노년까지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다루었고 문학작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최남선이 주간을 맡았으며, 이광수 등이 참여하였다. 「편견과 누습(陋習)을 버리라」, 「재물론」, 「노력론」, 「용기론」, 「풍기 혁신론」 등 당대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논설과 「레미제라블」, 「부활」, 「살낙원」, 「돈키호테」, 「켄터베리 이야기」 등 서구 문학작품의 소개, 박지원의 「연암외전(燕岩外傳)」, 임제의 「수성지(愁城誌)」, 허난설현의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 등 국문학 고전의 소개,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윤광호」 등 이광수의 소설과 최남선의 「세계일주가」 등이 발표되었다. 시조, 한시, 잡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2)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6월 관권이 베델의 손에서 만함(萬咸)의 손으로 넘어갔고, 1910년 6월 초순 통감부의 압력으로 박천군수 출신 이승용에게 넘어갔다. 다시 일제 치하에서 「매일신보(毎日申報)」로 개명되어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어 일제말까지 존속되었다.

등을 8호부터 현상 모집을 함으로써 문학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 국주한중(國主漢從)의 문체확립 등은 『청춘』이 민중 계몽과 더불어 근대문학의 확립에 공헌한 바를 할 수 있다.³⁾

서구문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태서문예신보』는 1918년 9월 26일 창간되어 1919년 2월 17일 통권 16호로 중단될 때까지 타블로이드 판 8면으로 매주 발행된 문예지였다. 장두철이 편집하고 데이비드 이 환이 발행인이었으며, 롱펠로우, 투르게네프, 에이츠, 베를레즈, 구르몽 등의 시가 주로 김억의 번역으로 소개되었으며 김억, 황석우 등의 창작시와 번역소설 및 창작소설, 평론 등이 발표되었다. 창간사에서 ‘태서의 유명한 소설, 시조, 산문, 가곡, 음악, 미술, 각본 등 일반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 대가의 붓으로 직접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하여 발행할 목적’이라고 밝혔듯 서구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당대 문인들에게 서구 문학 작품을 접하는 통로로 작용하였다. 김억은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과 다르더라도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을 함으로서 번역시의 시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태서문예신보』에 소개한 번역시를 엮어 『오뇌(懊惱)의 무도(舞蹈)』라는 번역시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김억의 번역시집은 당대 시인들의 교과서 역할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시인들에게 근대시의 형식과 율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⁴⁾

이 밖에 이 시기에 발간된 잡지로는 『아이들 보이』(1913년 9월 5일 창간, 1914년 8월 5일 통권 12호로 중단), 『학지광(學之光)』(1914년 4월 2일 창간, 1930년 4월 5일 통권 29호로 중단)을 비롯하여 한용운이 창간한 『유심(惟心)』(1918년 9월 1일 창간, 1918년 12월 1일 통권 3호로 중단) 등이 있다.

IV. 문화정치와 동인지의 명멸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일본은 기존의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하는 유희책을 쓰게 된다. 이 결과 신문 잡지의 발행이 일부 허용되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의 신문과 신문지법(新聞紙法)에 의해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개벽(開闢)』, 『신천지(新天地)』, 『동명(東明)』, 『조선지광(朝鮮之光)』, 『현대평론(現代評論)』 등의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발행된 잡지는 200여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언론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당국이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해도 기존의 검열, 허가 등의 통제를 철폐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신문, 잡지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라는 점에서 발행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원고 검열과 압수, 삭제 등 발행 과정에서 또 한차례 통제를 받아야 했다. 또한 일부 신문 잡지는 자금난으로 지속

3) 김근수, 같은 책, pp.119-120.

4)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고려대출판부, 1982), pp. 14-16.

적 발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는 신문지법에 의해 정치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잡지의 출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잡지와 더불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잡지의 출현, 문예전문지의 출현과 수적인 우위, 종교잡지의 비중 축소, 소년소녀 잡지와 여성 잡지의 증가, 내용의 충실과 체제 정립, 면수 증가 등 본격적인 잡지의 형식 구축, 잡지의 종류와 수량 증가, 발행 부수의 증가 등 양적 질적인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⁵⁾

3.1 독립운동 이후 제한적이거나 쟁취한 언론 출판의 자유로 인해 문학동인지가 다수 창간 발간된 점은 이시기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순문예지를 표방한 최초의 동인지 『창조(創造)』는 일본유학생 주요한, 김동인, 전영택 등을 동인으로 하여 일본 동경에서 1919년 2월 1일 창간되었다. 이후 주요한, 김환, 이광수, 김억 등이 참여하여 1921년 5월 30일 서울에서 발행한 제 9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김동인이 거의 혼자 발간 비용을 부담했지만 재정난이 겹치면서 종간의 길을 걷게 된 점은 한국 잡지사에서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순수한 문예지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소년』, 『청춘』, 『태서문예신보』 등과 차별화되었으며, 최초의 자유시인 주요한의 「불놀이」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열린 자여」, 「배따라기」, 전영택의 「천치? 천재?」 등의 단편소설이 발표된 잡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창조』에 이어 1920년 7월 창간된 『폐허(廢墟)』는 1921년 1월 2호로 중단되었으며, 『폐허 이후』가 1924년 1월 속간되었으나 아마저도 한번 발행 후 중단되었다. 『폐허』 동인들의 문학적 경향을 퇴폐주의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당대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는 했어도 폐허가 된 현실에서 부활을 꿈꾸는 희망은 놓지 않았다는 점은 퇴폐주의로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⁶⁾ 3.1 독립운동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식민지의 궁핍한 경제 상황은 서구의 세기말적 사상과 결합하여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퇴폐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 상황에 비춰볼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창간호에 실린 오상순의 「시대고와 그 희생」에서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이들이 당대 현실을 폐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간호의 「상여(想餘)」란에 의하면 독일 시인 실러의 ‘옛것은 쇠하고, 시대는 변한다. 새 생명은 이 폐허에서 피어난다’ 라는 시구에서 『폐허』라는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 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의 성격을 단순히 퇴폐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점을 보여준다. 주요 동인으로 김억, 남궁벽, 나혜석, 민태원,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이익상 등이 참여하였다. 「벽모(壁毛)의 묘」, 「태양의 침몰」, (황석우), 「힘의 숭배」, 「때때신」(오상순),

5) 김근수, 같은 책, pp.181-182.

6)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 5』(지식산업사, 1989), p.81.

7) 김근수 편, 같은 책, p.183.

「생명의 비의」, 「대지와 생명」(남궁초), 「어느 소녀」(민태원), 「양화(洋靴)와 시가」(나혜석), 「시 대고와 희생」(오상순) 등의 작품과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황석우, 변영로, 오상순, 박영희 등이 동인으로 참여한 『장미촌(薔薇村)』은 1921년 5월 24일 창간되어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고, 23면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초의 시 전문지라는 점이 의의라 할 수 있다.

1922년 1월 9일 창간되어 1923년 9월 6일 3호로 종간한 『백조(白潮)』는 홍사용, 이상화, 박영희,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로 낭만주의 경향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백조』에 발표된 주요 작품으로는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길」(나도향), 「할머니의 죽음」(현진건), 「월광으로 짠 병실」(박영희), 「말세의 회탄」(이상화), 「나의 침실로」(이상화), 「백조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홍사용), 「흑방 비곡」(박종화), 「사(死)의 예찬」(박종화) 등이 있다.

이 밖의 동인지로 양주동, 백기만, 유춘섭 손진태 등이 동인으로 참여한 시 전문지 『금성(金星)』(1923년 11월 10일 창간, 1924년 5월 4일 통권 3호로 종간)과 『창조』의 후신이라 할 『영대(靈臺)』(1924년 8월 5일 창간, 1925년 1월 1일 통권 5호로 종간) 등이 있다. 김소월이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였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1924년 10월 1일 창간한 『조선문단(朝鮮文壇)』은 이광수가 주재한 문예잡지로 「감자」(김동인), 「화수분」(전영택), 「B사감과 러브레터」(현진건), 「탈출기」, 「홍염」(최서해), 「물레방아」(나도향), 「백치 아다다」(계용묵)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수차례 경영자가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1935년 12월 27일 통권 26호로 종간되었다.

한편 1922년 11월 1일 창간된 『조선지광(朝鮮之光)』은 사회주의 사상을 표방한 월간 종합지로 1930년 11월 1일 통권 100호로 종간하였으며, 사회주의 이론 소개와 프로문학 작품 발표의 장이 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표방한 결과 검열로 인한 삭제 및 압수 조치 등을 빈번히 당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주의 이론 소개와 논쟁을 담은 논문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옥순례」(박영희), 「산돼지」(김우진), 「낙동강」(조명희), 「도시와 유령」(이효석), 「바다」, 「향수」, 「벗나무 열매」, 「슬픈 기차」, 「5월 소식」, 「발열」(정지용), 「5월의 향기」, 「술회」, 「해안」(김동환), 「네거리의 순이」(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임화), 「공우회」(김남천) 등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천도교 신자인 이돈화, 박달성, 이두성 등이 중심이 되어 신문지법에 의한 종합언론 잡지로 1920년 6월 25일 창간된 『개벽(開闢)』은 1926년 8월 1일 통권 72호가 발행금지를 당하며 폐간한다.⁸⁾ 『개벽』은 창간 이후 72호까지 발매금지 34회, 정간 1회, 벌금 1회를 당할 정도로 탄압을

8) 이후 1934년 11월 1일 『개벽』이란 이름을 계승하여 새로 창간했으나 1935년 3월 1일 통권 4호로 휴간되었고, 해방 후 1946년 1월 1일 복간하였다. 1949년 3월 25일 81호 발행을 끝으로 종간한

받았다. 발매 금지, 또는 정간을 당한 기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동휘, 서재필, 이승만, 김규식, 이시영, 안창호, 이동녕, 박은식,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 및 민족주의자에 대한 소개 글, 「민족적 생명에 집착하라」(이돈화), 「볼셰비크의 사상」(릿셀의 강연), 「조선 민족 발전의 신근거」(북려동곡), 「산업의 발전과 무산계급의 해방」(B.S.L), 「해방의 목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등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입장에서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개벽』이 당대 식민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한국 민족의 문제를 대변하는 잡지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벽』은 천도교의 기관지가 아님을 주장하였지만 ‘개벽’이라는 제호가 동학교주 최제우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말이고,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천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천도교 사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에 자유주의, 사회주의 모두를 아우르는 사상적 포용력으로 종합잡지로서 권위를 지녔다.

문화전문지가 아닌 종합잡지였음에도 매호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지면을 문학 분야에 할애하였고, 때로는 ‘신춘문예특집호’, ‘현대 해외문학 소개호’ 등의 특집호를 발행하여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개벽』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생화」, 「빈치」, 「술 권하는 사회」(현진건),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염상섭),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 「뽕」(나도향), 「사냥개」, 「붉은 쥐」(박영희), 「농부 정도룡」(이기영),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금따는 콩밭」(김유정)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배 계급 교화와 피지배계급 교화」(김기진), 「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박영희), 「계급문학 시비론」(이광수, 김동인 등 8인) 등 당시 유행했던 계급주의 문학과 그에 관련된 논쟁들에도 지면을 할애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치 시기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1930년대에는 『신동아』, 『조광』 등 신문사에서 발행한 잡지가 창간되었으며, 『조선학보』(일문), 『청구학총』(일문), 『한글』, 『조선어문연구』, 『조선민속』, 『진단학보』 등 여러 종류의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문학(詩文學)』은 시 전문 잡지로 1930년 3월 5일 창간되어 1932년 3월 15일 통권 4호로 중간할 때까지 40-50면의 얇은 분량이었으나 당대 문단에 미친 영향은 컸다. 김영랑, 정지용, 이하운, 박용철, 정인보, 변영로 등 참여한 동인들의 면면과 그들의 시편을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시들과 달리 개인의 감정을 자신의 운율과 언어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순수서정시의 확립이라는 의의를 지닌다.⁹⁾ 『시문학』에 수록된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내 마음 아실 이」(김영랑), 「선취(船醉)」, 「바다」, 「호수」, 「석류」(정지용), 「물레방아」(이하운), 「떠나가는 배」(박용철) 등의 시작품과 예이츠,

다.

9) 조동일, 같은 책, pp.389-391; 김근수, 같은 책, pp.540-542.

하이네, 괴테, 블레이크 등의 번역시가 있다.

1931년 1월 창간된 『신동아(新東亞)』는 동아일보사라는 거대 신문사에서 발행한 잡지로 발행 부수면에서 여타 잡지를 압도하였다. 창간호 2만부가 매진되었으며 이후에도 1만부 이상 꾸준히 판매되었다. 대형 신문사에서 발행한 결과 기존의 대부분의 잡지사가 겪었던 경영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자사의 신문을 통해 광고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신문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발행 환경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신동아』는 이와 같은 경영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판매만을 위한 통속잡지의 길을 걷지는 않았다. 『신동아』는 정치, 경제, 사회, 학술, 문예 등 다방면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시사, 평론, 과학, 운동, 연예 취미 등 독자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취미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다루고자 하였다. 『신동아』 또한 『동아일보』의 사시에 따라 민족적 색채가 강하여 일본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검열로 인한 삭제를 당하기도 하였다. 『신동아』에 실린 주요 작품들은 「꽃나무는 심어놓고, 「아담의 후예」(이태준), 「사흘 굶은 봄달」(박태원), 「월사금」(강경애), 「인텔리와 빈대떡」, 「레디메이드 인생」(채만식), 「김강사와 T교수」(유진오), 「식주구성」(김소월), 「임금」(한설야), 「바위」(김동리) 등이 있다.

『신동아』 이후 『신가정』(1933. 1. 창간, 동아일보사), 『중앙』(1933. 11 창간, 조선중앙일보사), 『소년중앙』(1935. 1. 창간, 조선중앙일보사), 『조광』(1935. 1. 창간, 조선일보사), 『여성』(1936. 4. 창간, 조선일보사), 『소년』(1939. 10 창간, 조선일보사) 등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다수 발간되었다. 조선의 빛이 되기를 표방한 『조광(朝光)』에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천하태평춘』(채만식), 『천변풍경』(박태원), 「날개」, 「종생기」(이상), 「봄·봄」, 「동백꽃」(김유정), 「소년행」(김남천),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색시」, 「복덕방」(이태준) 등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V. 일본의 탄압 강화와 잡지의 위기

1937년 이후 일본은 내선일체를 강요하며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부정하고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으며, 개인의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억압했다. 또한 전쟁 수행을 위한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하면서 식량수탈, 학병, 징용, 군 위안부 등으로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들은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하거나 절필해야 했으며, 일부 문인들은 친일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이 시기는 일본어 사용의 강요로 인해 많은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었고, 『인문평론(人文評論)』, 『국민문학(國民文學)』 등 친일 잡지가 다수 등장한 시기였다.

이처럼 억압적인 시대상황에서도 1939년 2월 1일 창간되어 1941년 4월 1일 통권 25호를 끝으로 폐간하기까지 순문에 월간지로 발행된 『문장(文章)』은 암흑기의 문단을 밝히는 등불같은 존재였다. 소설 64명 162편, 시 46명 180편, 시조 10명 34편, 희곡 및 시나리오 9명 9편, 수필 106명 183편, 평론 59명 119편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문인들 대부분이 『문장』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과에 관계없이 전 문단인을 망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장』이 당대를 대표하는 문예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6호인 1939년 6월호부터 이태준이 편집을 맡았으며, 기존 작가의 작품은 물론 꾸준히 신인 작가를 추천함으로써 그 문학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문장』을 통해 등단한 문인들을 살펴보면, 임옥인, 지하련, 최태웅, 곽하신, 김종한, 박남수, 박두진, 박목월, 이호우, 조지훈 등이며 이들은 해방이후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너무 많은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하여 선별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문장』에 수록된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무명」(이광수), 「영월영감」, 「농군」, 「밤길」, 「토기이야기」(이태준), 「황토기」(김동리), 「김연실전」(김동인), 「심문」, 「장삼이사」(최명익), 「5월」, 「독을 차고」(김영랑), 「묘지송」(박두진), 「길처럼」(박목월), 「북방에서」, 「흰바람벽이 있어」, 「국수」(백석), 「청포도」, 「절정」(이육사), 「장수산 I, II」, 「백록담」(정지용) 등 1930년대 문학사에서 언급되는 주요 작가와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문학을 대표하던 『문장』도 일본 식민지 당국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은 “『문장』, 『인문평론』, 『신세기』를 병합하여 하나를 만들되 일어 반분(半分)에 조선어를 반분하여 ‘황도(皇道)정신’ 양양에 적극 협력하라”고 강제적으로 종용하였으나 『문장』은 이에 불응하고 “본 지 『문장』은 금반(今般), 국책에 순응하여 이 제4권 제3호로 폐간합니다”는 공고를 끝으로 1941년 4월 폐간한다. 한국어로 창작된 우리 문학을 포기하고, 한국인의 정신을 배반하는 오점을 남기기보다 폐간을 하더라도 우리 문학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 잡지사에서 뛰어난 문학적 업적을 이룩한 『문장』의 폐간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친일 잡지만 남아 잡지의 명맥이 유지되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가 지속되었으며, 한국어로 된 잡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야 다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VI. 결론

이상과 같이 해방이전 한국 잡지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보았다. 서구 문물 소개 및 계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초기의 잡지에서 식민지 시대에는 들어서면서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잡지들이 많이 창간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적 문예지가 탄생하였다. 비록 동인지의 형식

이었지만 문예지의 탄생은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확대하였다는 의미와 더불어 문학 작품이 예술의 한 장르로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검열로 인해 민족적 문제를 다룰 경우 정간, 발매정지, 기사 삭제 등의 외부적 억압으로 인해 잡지 발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인지 및 문예지의 경우 판매를 통한 수익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적 문제로 인해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들은 꾸준히 발간되면서 1930년대 문단을 풍성하게 해 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제 식민지 말기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면서 순문에 월간지 『문장(文章)』이 자진폐간한 사실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지만 우리 문학의 명맥이 일시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토론문]

근대 잡지의 탄생과 전개

박치범 /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양윤모 선생님의 <근대 잡지의 탄생과 전개>는 부제 ‘한국 근대 잡지사’에 부합하는 글입니다. 연구자는 1908년에 창간된 《소년(少年)》을 시작으로 보고, 그로부터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문장(文章)》까지 이어진 한국 근대 잡지 발간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잡지는 문학사나 문화사, 사회사 등의 관점에서 당대 사회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자 자료일 것 같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는 글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글은 아직 논문으로서의 형태가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발표문을 논문의 형태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연구자가 근대 잡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근대 잡지에 주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즐거움이나 얹과 같은 효용)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발표문의 첫 단락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발행한 잡지에 대해 “근대적 체계의 잡지라고 하기에는 형식과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적 잡지’는 어떤 특징(전근대적 간행문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이 근대 사회와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가 발표문 전체를 통해 조명한 잡

지들은 순문예지 내지는 종합교양지입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것과 같은 기간에 조선에서 발간된 잡지 중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잡지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대 잡지 중에서도 어떤 것을 고르고 배제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앞선 질문에 비해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는 잡지 《소년》에 대한 평가 중 하나로 “적은 수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설명에서 연구자는 《소년》이 오히려 “서구문학의 소개와 역사, 지리, 자연과학 등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다룸으로써 당시 젊은이들의 교양을 강화하고자”한 잡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잡지가 독자층을 소수의 이른바 ‘마니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대중을 위한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에 대한 부연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연구자가 발표문을 논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명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우문들이 연구자의 향후 작업에 조그마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10.29)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10.29)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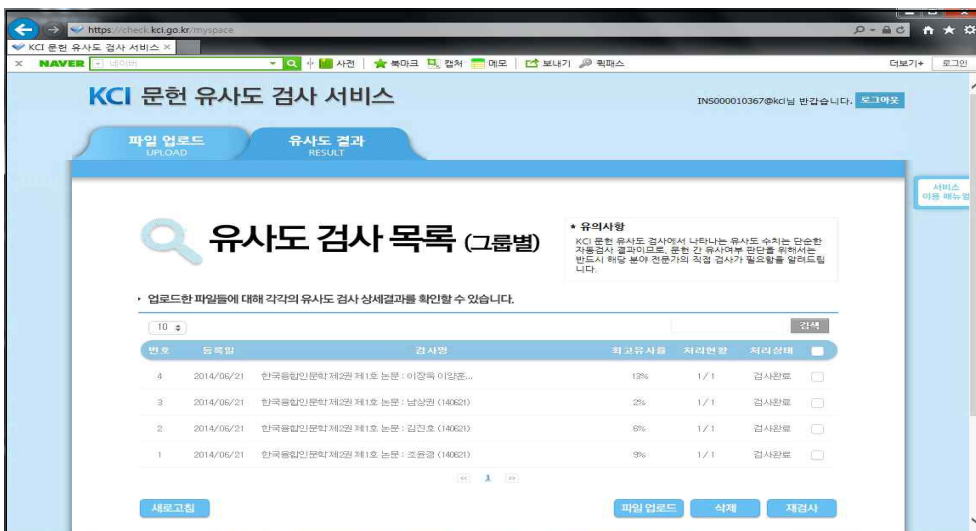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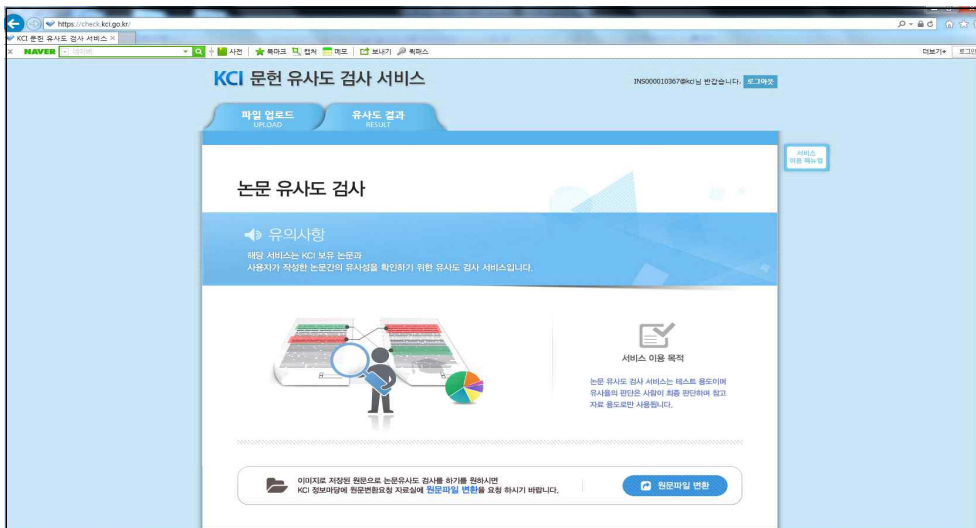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부정행위의 개요	
1. 연구윤리의 중요성	10
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14
3.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및 발생원인	19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1. 적용대상 및 검증주체	30
2. 검증시효 및 검증원칙	35
3. 검증기간 및 검증기구	38
4. 제보자와 피조사자	42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제보접수	49
2. 예비조사	52
3. 본조사	61
4. 판정	75
5. 이의신청	76
6. 검증 시 유의사항	78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1. 조사결과에 보고	84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	86
3. 징계 등의 후속조치	90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10.29)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융합인문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2016.10.29)
미디어를 통해 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